# 4월 구역모임

# 임마누엘의 확신

## ❦ 1. 환영 Welcome

◎ 인사와 교제
◎ 감사와 나눔

## ❦ 2. 찬양 Worship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430장)
◎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435장)
◎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440장)
◎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442장)

## ❦ 3. 말씀 Word

| 생각하며 읽기 |

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② 임마누엘은 세상으로 보내지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압니다.

### (1) 들어가면서...

성도가 구속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크고 작은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1:23)

여기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임마'(Imma)는 '함께'(with), '누'(nu)는 '우리'(us), '엘'(El)은 '하나님'(God)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with us is God!',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영성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내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세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깊은 영성의 터가 잡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왜 임마누엘의 확신이 필요한 것일까요?

## (2) 하나님 부재의 경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한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잠시 옆으로 밀쳐 놓고 그분과 교제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한 번 택하신 이후에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밀쳐 낸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부재를 심각하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신앙생활에는 항상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듯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심연을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망가지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람이 전쟁에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평소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적병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애굽에서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치사하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아브람은 적병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 왔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15:1)

아마도 아브람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큰 전쟁을 치른 후 영적 공허감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공허감이 찾아오면 연이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감정이 함께 밀려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브람의 마음속에는 '아직 새파랗게 젊은 조카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 또한 이 낯선 땅에서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라는 끝도 없는 두려움이 밀려온 것 같습니다. 그때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브람의 마음을 알고 찾아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람은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될 만한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버리신 것 같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생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 임재의 확신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서 등을 돌리신 것 같고 구름 뒤에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 [ 영혼의 어둔 밤 ]

인도의 빈민가에서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내면세계의 진실에 대한 기사가 미국 〈타임〉(The Time)지에 실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와 영성 지도자들의 보고를 살펴보니,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섬기면서도 정작 그 자신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하나님의 부재 경험과 영혼의 어둠 때문에 몸부림쳤습니다. '그토록 많은 선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을 경험하지 못했다니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명에 충실했던 그녀의 신앙이 참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테레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의 부재를 철저히 경험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잘 모르는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과 느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분이 잡으셨던 성도의 손을 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당분간 그를 광야에 홀로 두십니다. 이것을 일컬어 '영혼의 어둔 밤'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코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감각의 어둔 밤'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감각, 느낌, 감정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확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감각과 느낌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기억의 창고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을 끌어내 자신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님을 계속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손에 잡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의지로 붙잡아야 합니다.

### (3) 감정에 의지해 주를 믿지 말라

왜 하나님은 어느 순간 이처럼 우리의 손을 놓으실까요? 감각과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향하는 법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과 무관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감정의 고양 정도에 맡겨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영혼의 어둔 밤을 철저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분도 어느 순간 육체의 고통이 극에 달하셨던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식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예수님이 배우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분은 십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은 정지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육체적 상태, 감정의 고양감, 영적 충만함에 맡겨 두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한 분을 절대 신뢰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이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며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도록 했습니다.

### (4)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한 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자의 손에 날이 선 칼이나 훌륭한 참모나 넉넉한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어 바로와 싸웁니까?" 이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3:12)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보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수1:5)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등 모든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5)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징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고, 삶에 고난과 역경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시27:1)라고 노래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확신에서 시작해서(마1:23)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마28:20).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이 아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하나님을 보았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낯빛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어둔 밤을 경험할 때에도 자신의 느낌과 감각에 신앙을 맡겨 두면 안 됩니다. 앞길이 막히고 주변의 여건이 꼬인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죄입니다. 절망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즉 임마누엘의 확신을 붙든다면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통째로 내어주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고백입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고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 삶의 적용을 위한 나눔 ✚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낀 때가 있습니까?
그때 나의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 주시고
나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이겨 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혹시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오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 4. 중보기도 Work

◎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
◎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 합심기도 후 '주기도'로 구역모임을 마칩니다.